

협회소식

본회, 우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 퇴비화 재활용농가는 재활용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본회는 지난 4월 20일 환경처에서 입법예고한 우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해 5월 10일 재활용의 신고에 있어서 축산폐수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양돈농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켜 가축분뇨를 완전히 처리하고 토양을 보전토록 해야 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환경처에서 입법예고한 우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은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대상 규모를 종전의 1,400m² 이상에서 1,000m² 이상 또는 돼지 사육두수 750두 이상으로, 신고대상 규모는 250m² 이상 1,400m² 미만에서 250m² 이상 1,000m² 미만 또는 사육두수 180두 이상 750두 미만으로 강화했고,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대상 지역도 종전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그 보호구역으로부터 유하거리 3km 이내의 상수원 상류지역 또는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3km 이내의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유하거리 4km 이내의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강화했다.

이에 본회는 양축농가가 가축분뇨를 퇴비로 재활용

하여 가축분뇨를 완전히 처리하고 토양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축산폐수를 자경농지, 초지 등에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종농가는 재활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고, 축사의 면적과 사육두수 등 이중으로 규제토록 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대상 농가의 규모를 축사의 면적만으로 규제해 주며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대상지역도 상수원취수시설로부터의 유하거리를 종전의 3km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아울러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대상 규모가 강화됨에 따른 농가의 자금부담 등을 고려해 법 개정시 기존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양축가는 경과조치로 인정하고 최소한 2000년까지 유예기간을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지난 5월 11일 본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화시설 설치대상 기준중 사육두수 적용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허가대상으로 규제되는 농가의 정화시설 설치기간을 '98년말까지 유예해 줄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견을 환경처에 제출했다.

환경처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는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은 '95년말까지, 간이정화조는 '94년말까지 정화시설을 기준에 맞게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본회 일본 식육·유통산업 연수단 귀국



본회 일본 식육·유통산업 연수단(단장: 김찬채 이사)이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식육 유통산업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축산물직판장 운영의 활성화와 유통시설 근대화 촉진을 위해 본회 직판장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된 이번 연수단 파견에는 본회의 직판장 운영지부 및 운영 희망·계획 지부의 지부장, 운영요원, 본회 직원 등 총 19명이 참가하여 동경 하루미 전시장에서 개최된 '94 식육산업전을 비롯해 동경식육시장, 백화점 식육부, 사이보쿠축죽목장 등을 방문, 일본의 돼지사육방법과 분뇨처리방법, 돼지 도축, 경매, 식육유통과정, 직판장 운영방법, 즉석 소시지 제조방법 등을 연수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기술과 정보를 직판장 운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본회, 종돈장위생지도위원회 설치키로

본회는 지난 5월 7일 방역대책추진위원회 위원을 변경 위촉하고 방역대책추진위 내에 소위원회로 종돈장 위생지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본회는 지난 2월 8일 종돈장 위생관리요령이 고시됨

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위생지도 활동을 벌이기 위하여 이같이 결정하고, 각 도별 종돈장 위생지도 위원들이 종돈장에 대한 위생지도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본회는 각 도별 종돈장 위생지도위원회를 운영하고 전체 종돈장 위생지도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수집하여 지고기 요리강습회를 개최했다.

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방역대책추진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방역대책추진위원: 김시영, 유인중, 오정남, 최찬영, 박수길, 김찬채, 임원섭, 백우현, 이동열, 이내홍

전북양돈인대회 성료



본회 전북도협의회(회장: 윤주성)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 김계군 금산사 잔디광장에서 본회 최상백 부회장, 조옥봉 경북도협의회장, 김영범 도의회 수석부 의장, 도 축정과장, 전북양돈조합장, 김제축협 조합장, 도내 각지부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전북양돈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북도협의회는 금산사에서 관광객들에게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용 팜플렛과 리플렛, 요리책자 등을 나눠주며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 방법을 홍보하는 등 캠페인을 벌였으며 각 지부별로 돼지고기요리 시식회도 개최했다.

또한 김제지부 회원들은 풍물놀이를 펼쳐 이번 대회

를 더욱 빛냈으며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체육대회와 노래자랑을 갖고 회원간의 결속을 다졌다.

이날 대회에는 퓨리나코리아를 비롯한 4개 사료회사와 한국기자재협회, 전북양돈조합, 춘강중축을 비롯한 3개 종돈장 등에서 후원했다.

남해지부 현판식 개회



지난 2월 4일 본회 이사회의에서 설립이 승인된 남해지부(지부장 : 조철)가 지난 4월 27일 지부 사무실에서 본회 하오조 경남도협의회장, 노영한 전무, 신태식 부산·경남양돈조합장, 민자당 박희태 의원, 남해군수, 남해축협 조합장, 경남북도내 각 지부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서 본회 노영한 전무는 축사를 통해 “UR 타결로 전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고 말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양돈인들의 단결과 힘의 결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남해지역에도 본회 남해지부가 설립되었으니 지역 양돈인들이 힘을 합쳐 경쟁력 향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남해지부의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번리 179-3

▲전화번호 : (0594)62-0440

▲여 직 원 : 김순미

안성지부, 직관장 개장 2주년 기념식 및 돼지고기 요리강습회 개최



안성지부(지부장 : 박광수)는 지난 5월 11일 안성지부 직관장에서 본회 이명복 부회장, 노영한 전무, 안성군 축산계장, 안성축협 조합장, 본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직관장 개장 2주년 기념식 및 돼지고기 요리강습회를 개최했다.

안성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본회가 제작한 돼지고기 요리책자와 소비촉진 홍보용 팜플렛과 리플렛 등을 참석자들에게 나눠 주고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했으며, 요리강습회에서는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양준희 강사가 돼지 스테이크, 돼지 내장볶음 등의 요리를 선보였다.

또한 이날 안성지부는 직관장 개장 2주년 기념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 평소보다 20% 쯤 값에 돼지고기를 판매했다.

마산지부, 돼지고기 시식회 개최

본회 마산지부(지부장 : 김준수)는 지난 5월 3일 마산공설운동장에서 지부 회원과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고기 소비 홍보 및 무료시식회를 가졌다.

마산지역의 지역축제로 매년 개최되는 “마산 가고파 큰 잔치” 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번 시식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마산지역 주민들에게 돼지고기 요리책자, 팜플렛, 리플렛 등을 나눠 주고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다양한 요리방법에 대해 홍보했다.

철원양돈영농조합법인, 수출단지 지정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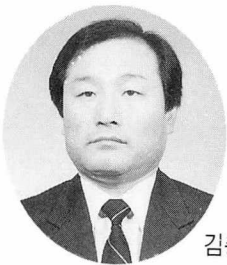
철원양돈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김만석)이 돼지고기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했다.

신청을 받은 강원도는 4월 25일 철원양돈영농조합법인의 수출전망이 밝아 연차사업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수출단지 지정을 위해 강원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에 수출단지 지정을 건의해 허가가 나는대로 정부 및 지방비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철원양돈영농조합법인은 현재 32가구에서 42,5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의정부 소재 은혜축산과 수출계약을 맺고 올해 33,400두를 수출할 계획이며 오는 '98년부터는 월 9,400두를 수출할 계획이다.

제주도협의회장에 김충세씨 선출



김충세 제주도협의회장

제주도협의회는 지난 5월 2일 임시총회를 갖고 오정남 도협의회장 후임에 김충세 제주지부장을 도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김충세 제주도협의회장은 그간 종돈개량과 양돈사양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했고, 최초로 발효퇴비기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돼지인공수정센타를 설립하여 우수유전자를 보급하는 등 양돈산업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김충세 도협의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제주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복제주균 조천읍에서 총세종축을 경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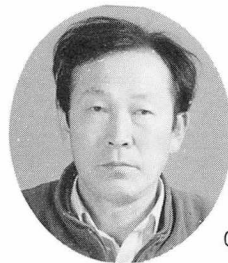
노영한 전무, 박동래 부천지부장,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위원으로 위촉

분회 노영한 전무와 박동래 부천지부장이 지난 5월 4일 순수 민간운동단체로 발족한 축산분뇨 자원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동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정영채 중앙대 교수가 선임됐으며 축산관련인사 21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환경보존운동을 벌이는 한편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오수·분뇨 처리법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법으로 분리·개정하는 것을 주요 활동목표로 하고 있다.

영일·포항지부장에 이원씨 선출



이원 지부장

영일·포항지부는 지난 4월 6일 지부 사무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강충열 지부장 후임에 이원씨(53세)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원 지부장은 현재 영일군 기계면에서 1,000두 규모의 기계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영암지부장에 강동하씨 선출

영암지부는 지난 4월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김

일중 지부장 후임에 강동하씨(48세)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강동하 지부장은 현재 영암군 시종면 봉소리에서 모돈 110두 규모의 씨알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연기지부장에 박래면씨 선출



박래면 지부장

연기지부는 지난 2월 22일 지부 사무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전영식 지부장 후임에 박래면씨(45세)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박래면 지부장은 현재 충북 청원군 강외면 정중리에서 지원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협 · 회 · 단 · 신

울산지부 사무실 이전

울산지부(지부장 : 유재환)는 지난 5월 13일 아래 주소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번호는 변동없다.

▲주소 : 경남 울산군 삼남면 교동리 1499-15(강변주유소 뒤)

남제주군지부 사무실 이전

남제주군지부(지부장 : 강창우)는 지난 4월 30일 아래 장소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번호는 변동없다.

▲주소 :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873-1(상호빌딩 4층)

토막상식

완전한 고품질의 돼지고기 단백질

우리는 일생동안 단백질을 섭취하여야 되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단백질이 중요한 것이다. 단백질은 인체내 각세포에 필수적이다. 이것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매일 22종류의 아미노산을 필요로 한다.

인체는 이들 중 반 이상을 자체에서 합성할 수 있으나 8종의 필수아미노산은 합성되지 않기 때

문에 식품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돼지고기는 모든 필수아미노산을 필요량 만큼 인체에 공급해 준다. 이런 이유로, 돼지고기의 단백질이 완전한 고품질 단백질로 불리우는 것이다.

인체가 질병과 싸우고 조직을 재생 또는 만들어 내기 위해 완전한 단백질이 요구된다. 85g의 돼지고기엔 29.4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